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갈매까지 기보지(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누엇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튼튼 생활제(재)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재)
11 50 도큐 드라마<싸인>(재)	00 우리말 거꾸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0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2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00 뉴스특보	00 2013 삼성화재해 월드비듬 마스터스 결승 3국	20 보물지도(재)	00 MBC 특별생방송 <큰 나눔, 큰 사랑>	30 KBC 특별기획 하늘에서 본 봄노 <보성>(재)
2 00 직언직실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00 SBS 뉴스 10 건강 클리닉(재)
3 00 명랑해결단(재)	00 뉴스토코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 유치원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꼭 원정대 40 헬로 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네트워크 특선 55 튼튼생활제(재)	25 코파변장의 동화수사대 55 비타민(재)	30 우리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2(재)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도전! 발명왕	05 세상발견 유레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부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부부극장 공작지(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임마가 있는 풍경 <미미도>	55 MBC 특별기획 <재능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KBS 파노라마 50 생생최전선	0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00 수목미니시리즈 <메디컬 팀업>	00 드라마스페셜 <상속자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타임	10 해피 투게더	15 드라마 페스티벌 <나얼마 아빤 할머니 안나>	15 자기가
12 20 개국 2주년 특집다큐 <박법사의 행복로드> 40년 부인의 비밀 2부(재)	30 인문강단 락(樂)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45 MBC 뉴스24	35 나이트 라인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7:00 곤 07:15 마이의 모험 07:30 꼬마바스 타오 07:45 로보카 폴리 08:00 똥똥똥 유치원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08:35 방구대장 뽕뽕이 08:50 모야모야 09:05 코코콩2 09:20 생활의 비법 10:00 한국기행 10:20 명의의 건강비결 <비만, 탈출구를 찾아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재현 교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덕년의 먹으면 싹싹 쉰다는 음식 -배추숙여무침과 김치라면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3:05 지식채널e 13:10 출가문 수확 EBSMATH 13:20 사이틴 13:30 모피와 친구들 13:45 꼬마 철학자 후고 14:00 짚날 채리우스 박사님 14:15 장난극 나라의 노디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5:00 피터팬 15:30 바두와 친구들 15:45 똑똑박사 에디 16:00 똥똥똥 유치원(재)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16:30 코코콩2 16:45 모야 모야(재)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바스 타오 1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7:45 로보카 폴리 18:00 마이의 모험 18:15 곤	18:30 생방송 보나하니 19:30 TV로 보는 일차 동화 20:00 EBS 뉴스 20:20 직업의 세계 일인자 20:30 세계테마기행 <지구미의 뜨거운 심장, 자바 4부 -자바의 영혼, 육아카르타> 21:30 한국기행 <보령의 섬 4부-황금바다의 선물>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22:45 극한직업 23:15 EBS 역사특강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스포츠스쿨
---	--	---	--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00:50 내신6강 01:40 포스 02:30 " <적분과 통계> 03:20 " <기하와 벡터> 04:10 " <수학1> 05:00 " <수학2> 05:50 탐스런 <물리1>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07:30 탐스런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화학1> 09:10 " <생명과과학1> 10:00 " <지구과학1> 10:50 " <물리2>	<한국사> 11:40 <화학II>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생명과학II> <문학I> 13:00 탐스런 <생명과과학II> <문학II> 14:00 " <지구과학II> <한국사> 15:00 <한국사> <적분과 통계> 15:00 기본과 특별한 <국어A형> <기하와 벡터> 16:00 2015 수능 스타트 <영어B형> <수학1> 17:00 " <영어B형> <물리1> 18:00 탐스런 <생명과학1> 19:00 <화학II> 20:00 <물리II> 21:00 <지구과학1> 22:00 고교특강 올림 #포스 <Basic Grammar> <화학1> 22:00 <영어독해의 기본2> <생명과학1> <영어독해의 기본2> <지구과학1> 23:00 <Basic Grammar> 23:50 지식채널e
---	--

EBS플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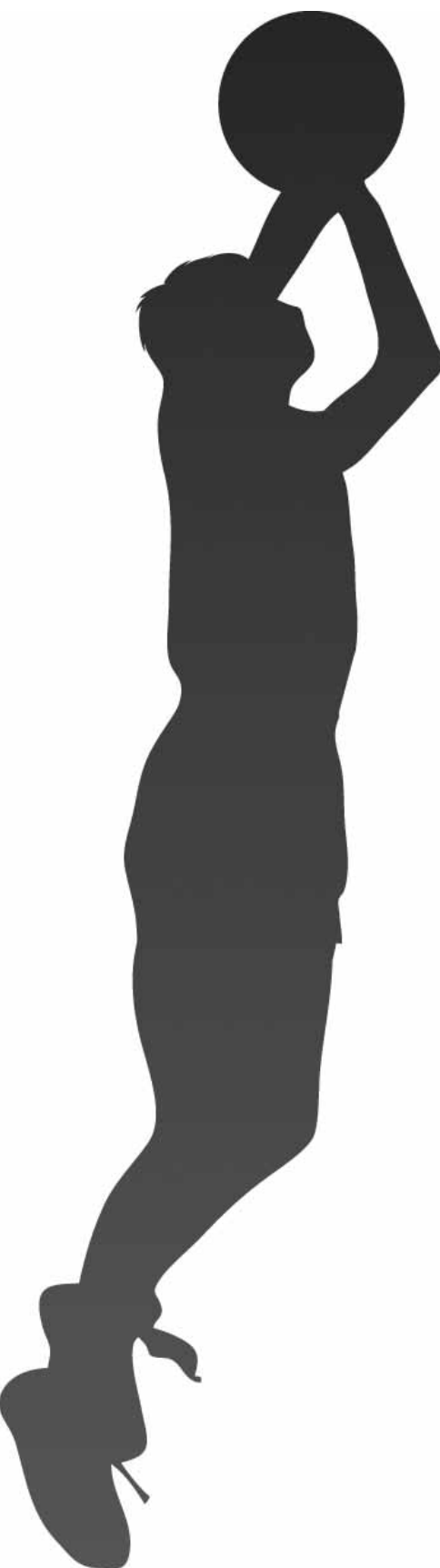
07:00 과학실험-하와이 07:30 수학의 원리 마티미티 08:20 9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08:30 디문화 한국어 09:00 출가문 수확 EBSMATH 09:10 중학 1학년 <국어1>(상) <수학1>(상) <도덕1> 11:10 <수학2> <과학> 11:50 중학 2학년 <수학2> <과학> 12:30 <과학> 13:10 중학 3학년 <도덕> 13:50 중학 개론 끝장내기 <세계사> <한문> 14:30 <한문> 15:10 스텝랜드 15:20 초등 내공남	15:50 " <과학 4-2> 16:20 " <과학 5-2> 16:50 " <과학 6-2> 17:20 역사 6 뉴스 17:35 사이틴 17:45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 <특별 직업이 보인다> 18:00 <수학2> <과학> 18:30 영어없이 살아보기 <영어> 19:00 <과학> 19:30 엘더폴 싸이언스(7) <과학> 20:20 EBS 문화사리조 <100인의 증언> <100인의 증언> <한문> 21:20 동업실공 <역사1>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과학3-2>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음 11월 10일 壬子)

子	36년생 짐작코 있는 편이 더 낫다. 48년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리라. 60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시작과 끝이 같아만 하느니라. 84년생 설상가상 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48
丑	37년생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49년생 한 눈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61년생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73년생 파장 효과까지 예견하고 처신하자. 85년생 성실하게 일하라. 행운의 숫자 : 61, 06
寅	38년생 적재적소에 쓰여야 효과를 보는 법이다. 50년생 평온한 하루 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날이다. 62년생 진심에서 우려나와야 감동을 줄 수 있다. 74년생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0, 53
卯	39년생 속히 처리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51년생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63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75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39, 67
辰	40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52년생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64년생 긴장할 필요 없으니 자연스럽게 행하면 된다. 76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33
巳	41년생 새로운 것에서 예상치 못했던 물꼬가 트인다. 53년생 실행하지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5년생 서로 간에 유익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 모색해 보자. 77년생 책임감으로 인해 알아가게 무겁겠다. 행운의 숫자 : 50, 15

午	42년생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뜻대가 있어야겠다. 54년생 주변의 꾀에 빠진다면 복잡해질 것이다. 66년생 오로지 현안에 대해서만 몰두할 일이다. 78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3, 43
未	43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55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67년생 사려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79년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7, 77
申	44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덤피지 않으면 밀리겠다. 56년생 가장 현실적이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68년생 도를 넘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80년생 표현하지 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54, 69
酉	45년생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은 과욕일 뿐이리라. 57년생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69년생 규칙적이고 꾸준해야 생산적일 수 있느니라. 81년생 예상 차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58
戌	46년생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느니라. 58년생 허심탄회하게 밝히려 하느니라. 70년생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82년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4, 90
亥	47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59년생 잘 처리한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한다. 71년생 망설임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83년생 큰 타격이 되지는 못하나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97,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농구에 푹~ 빠졌어요”

KBS '우리동네 예체능' 농구 한·일전도 기대

“만화 슬램덩크에 비교하자면 김혁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유재현 같은 선수입니다. 농구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강호동 형은 강박고고요. 그래도 우리 팀의 에이스는 여전히 저입니다.(웃음)”(서지석)

11일 열린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출연진들은 농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지석, 김혁, 줄리엔 강, 이해정은 인터뷰 내내 프로그램에 합류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줄리엔 강은 “예능 프로그램을 몇 번 해봤는데 '우리동네 예체능' 만큼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운동도 좋아하고 촬영하는 게 일 같지 않으니깐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너무 즐겁다”고 강조했다.

일 방송에서 상대팀의 공을 가로채 원핸드 덩크슛을 성공해 주위를 열광케 했다. 방송 때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다.

이에 대해 김혁은 “솔직히 말해 공을 살짝 놓쳐 완벽한 백업슛은 하지 못했다”며 “예체능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나서 주위 분들한테 연락이 자주 온다. 다른 멤버들이 스텝없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출연진들은 '우리동네 예체능' 팀의 팀워크에 모두 놀라움을 표했다. 팀은 농구 종목으로 변경하고 총 4전 3승의 패권을 이뤘다.

지난 4일 방송을 시작한 '우리동네 예체능'은 매년 새로운 운동 종목을 선정, 연예인 팀과 동호인 팀이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을 거쳐 현재는 농구 동호인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현재 예체능 팀에는 메인 MC 강호동을 포함해 최강창민, 박진영, 서지석, 줄리엔 강, 김혁, 존박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구선수 출신 모델 이해정도 흥얼거림으로 활약 중이다.

여자가 혼자밖에 없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해정은 “처음에는 정말 운동밖에 안 시켜서 놀랐는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배려해준다”며 “게임을 뛰면 상대편 남자들이 많이 바둑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니까 더 뻔하려고 하더라”며 웃었다.

그는 “경기 때문에 일부러 살을 찌워 패션쇼에 실 때 웃이 안 맞는다”며 “코트에서 많이 못 뛰는 것은 아쉽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요즘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는 농구선수 출신 배우 김혁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는 10

일 방송에서 상대팀의 공을 가로채 원핸드 덩크슛을 성공해 주위를 열광케 했다. 방송 때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다.

이에 대해 김혁은 “솔직히 말해 공을 살짝 놓쳐 완벽한 백업슛은 하지 못했다”며 “예체능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나서 주위 분들한테 연락이 자주 온다. 다른 멤버들이 스텝없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출연진들은 '우리동네 예체능' 팀의 팀워크에 모두 놀라움을 표했다. 팀은 농구 종목으로 변경하고 총 4전 3승의 패권을 이뤘다.

서지석은 “우리 팀은 경기할 때 팀원의 단점이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고 항상 서로를 도와주려고 한다”며 “공을 놓거나 멋있는 플레이를 할 때보다 팀원들과 조화가 잘 맞아떨어질 때 가장 쾌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혁도 “카메라가 찍고 있지 않을 때도 팀원들은 항상 농구 얘기만 하고 서로를 챙겨준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배려해주는 팀원들과 같이 코트를 뛰고 있다는 게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방송에서는 농구 한일전을 치르기 위해 일본 도쿄로 떠나는 팀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농구 한일전 경기는 오는 17일 방송에서 공개된다.

한일전에 대해 줄리엔 강은 “한일전을 뛰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때 때문에 꼭 이기고 싶었고 또 열심히 뛰었다”며 “상대편인 일본팀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해정은 “한국 사람에게 한일전은 특별한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뛰었다”며 “팀워크가 너무 잘 맞고 모두 경기에도 최선을 다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고 했다.



별종의 별 송강호

한국걸림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조사

지난 2005년부터 한국걸림이 해마다 조사하는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에서 송강호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걸림은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170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송강호가 22.5%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송강호는 각각 900만 관객을 돌파한 '살국 열차'와 '관상'의 주연으로 출연해 대중의 호감을 얻었다. 송강호의 1위 복귀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베를린'과 '더 테러라이브'로 주목받은 하정우는 18.9%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

으며 '지.아이.조 2'와 '레드:더 레전드'를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이병헌은 18.0%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최대 관객(1281만 명)을 동원한 7번방의 선술의 류승룡은 10.1%의 지지를 얻어 4위를, '타워' '감시자들' '스파이' '소원'에 출연한 설경구는 7.4%의 지지율로 5위에 올랐다.

이밖에 '관상'의 이정재(6.7%)와 김혜수(6.3%),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김수현(5.7%), 장동건(3.7%), '베를린'의 전지현(2.8%)이 10위 안에 들었다. 장동건은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도 10위 안에 드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TV 하이라이트

한겨울 땀에 젖은 연탄 공장



극한직업(EBS·밤 10시45분)은 약 800장의 연탄을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싣다 보니 겨울임에도 그들은 땀에 젖는다. 치열한 삶을 사는 연탄 공장 사람들의 뜨거운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위가 한차례 지나간 후, 연탄 공장은 고된 작업을 이어간다. 기계가 고장 나면 시간이 지체되고, 작업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는 작업자들. 취재 중인 연탄 공장에는 우즈베키스탄 작업자가 있는데, 공장에서 재공하는 숙소에서 지낸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연탄 배달 차량이 여전히 줄지어 서 있고, 상차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에네켄 노동자의 한국 음식 사랑



한국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은 1905년 1033명의 조선인들은 새 희망을 찾아 멕시코로 떠났다. 하지만 현실은 악마의 발톱보다 더 폭력하다는 에네켄 일을 자르는 흑독한 중노동 뿐이었다. 그들은 조국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밥, 김치,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고, 끈질기게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에네켄과 그 후손들에게는 밥이 조국이고 김치가 뿌리였던 것이다.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중 한 곳인 레판마을의 아내 마리아 송은 1세대 이민자인 아버지의 음식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저 살기 위해 먹었던 옥수수, 버리는 광산용 양배추 껍질로 만들었던 김치, 수박껍질 김치, 좀 형편이 나아지자 먹을 수 있던 쌀밥, 칼국수까지 조국을 그리운 1세대 아버지의 음식은 딸에게 고스란히 남겨졌다.

비틀어진 가족사에 얽힌 비극



드라마 스페셜-나 엄마 아빠 할머니 안나(MBC·밤 11시 15분)는 나는 잘대로 가질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욕심, 그렇기에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행복, 비틀어진 가족사는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됐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 외로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기엔 자신의 상처받은 눈이 멀어버린 가족, 한결기 빛처럼 가족을 밝히며 여름 속 여름에 대한 연민을 지닌 소년과, 강하지 않은 자식과의 유대감 탓에 아내를 빼앗긴 듯한 상실감 속에 목말라하는 아버지는 결국 자신과 비슷한 고독에 잠겨있는 안나에 이끌린다.

물 사이의 일을 알게 된 엄마는 총격 속에 사교로 질책해서 추락하고, 아빠와 안나 사이에 일어난 이 비밀들을 엿듣게 된 할머니는 천천히 복수의 서곡을 올린다.